

'바닥재에도 건강' 천연소재 선풍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주된 관심은 「삶의 질」. 따라서 주거문화에도 단지 쾌적한 주거공간 개념을 넘어 건축자재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 무해성 여부, 기의 흐름, 수맥의 영향 등 건강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개성연출, 고급화 추세가 불고 있다. 최근 건강주택 추구의 일환으로 유행되고 있는 천연자재 선호동향과 기능성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는 국내 바닥장식재의 현황 및 종류,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원목마루재 비용 큰 부담

가격이 부담스러워 직접 인테리어점과 건축자재상을 찾아 시장조사를 나선 이씨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가족건강을 생각한다면 원목마루재가 기본이다」, 「비싼 원목마루재보다 목질감이 똑같은 나무무늬 립류나 천연황토 건강바닥재가 최고다」. 바닥재의 종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다 재질과 색상,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상술에 뛰어난 판매원들의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모두 다 그럴듯했다.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원목재를 쓰자니 비용부담이 크고, PVC를 쓰자니 유행에 뒤떨어질 것 같았다. 결국 이씨는 일주일의 지나도록 결정을 못하고 바닥재 카다로그만 훑도록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최근 바닥장식재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원목마루재와 PVC류 중에서도 인공냄새가 안나고 자연스러운 나무무늬류 천연질감 소재.

강남구 논현동의 기린건축자재백화점 바닥장식재 판매담당 김현경씨는 「과거에는 취향에 따라 소비자들의 바닥재 기호도가 다양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원목이나 코르크 등 천연소재를 원하고 PVC류라도 나무결 무늬가 감도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 대부분이 가격보다 얼마나 건강에 이롭고 유행에 민감한 상품인지를 고려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천연소재 나무결 무늬 유행

이같이 바닥재 시장에 원목, 황토, 코르크 등의 자연소재가 인기인 것은 비단 바닥재시장 단독의 추세만은 아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이같은 천연소재 바닥재 유행 원인을 최근의 전반적인 「주거문화 자연화」 및 「아파트생활의 건강기능추구」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 연구소 「참공간」의 이명옥 부장은 최근의 천연소재 바닥재 유행원인을 「건강욕구가 강해진 대다수 소비자들이 미적으로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천연소재를 추구하고, 기능상으로는 항균, 방충 등 건강기능이 강화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닥재로 50% 이상이 원목마루재가 깔리고 있다」고 언급한 LG화학 건강재사업본부 목질마루재 기획담당 김태성 대리의 경우 「요즘 소비자들의 가구취향 자체가 딱딱한 철제나 화려한 유리제품 보다 자연스럽고 은은한 느낌이 나는 목재를 선호하고 있고,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도 나무, 화분, 소형 정원수 등 주거문화 전반에 「친자연」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바닥재 역시 목재나 목재 느낌의 자연소재가 인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바닥재 시장규모는 약 8천억원 정도. 원목마루재 시장의 경우 9백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한때 「우리 집에 ○○룸 깔았다」란 말이 유행 할 정도로 바닥 장식재의 대명사였던 「톱류」가 출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그 이전만 해도 변변한 마감 소재조차 없던 우리의 주거환경은 바닥 난방이 되지 않던 쪽마루, 시멘트 구들장에 한지, 장판지에 니스로 마감 처리한 안방 등이 고유 풍경이었다.

바닥재시장 8천억원대 웃돌아

한국형 수맥차단 온돌마루재를 개발, 시판하고 있는 「이건수맥마루」 장용재 대표이사는 국내 바닥재 변천사를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의 거실바닥에 각재를 대고 그 위에 합판을 댄 후 니스칠로 마무리한 「쪽마루형」을 제1세대로, 이후 88올림픽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을 석권했던 「톱형」을 제2세대로, 최근의 다양한 천연 건강소재의 한국형 「온돌마루형」을 제3세대로 분석, 「최근에는 원목재의 뒤뜰림을 없애고 열전도율을 높인 한국형 순수 온돌형 원목마루재까지 개발되어 국내에 원목바닥재를 유입시킨 일본에 역수출하는 단계까지 바닥재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닥장식재 종류는 시공방식, 재질, 기능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바닥재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다양한 경쟁상품이 선을 보이고 제품 대부분이 혼합특성 및 혼합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종류를 구분하기가 애매할 정도다.

과장광고 속지 말도록

그러나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최근 건축에 문의한인 주부들이 오래된 아파트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거나 유행을 따르기 위해, 또는 고급형 수입바닥재를 깔았다는 심리적 만족을 위해 무턱대고 바닥

재 교체수리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 호화스러운 고가 자재를 원하는 상술이나 각종 과대한 기능을 강조한 바닥재 광고에 현혹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건강주택 바람에 힘입어 바닥재에 천연 소재바람이 본격화 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국내 대기업 바닥재 전문담당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바닥재에서 PVC 시장점유율이 아직까지는 70%선이고, 원목 마루재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PVC류는 개도국의 수출로 대체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바닥재의 천연재시대 도래는 확실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목마루재와 기존 PVC재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무조건 유행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택개성과 비용면, 기능면의 필요충분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려함보다는 용도 맞춰 선택

바닥재 알뜰선택 요령은?

1. 용도, 가격대, 기능성을 먼저 생각하라.

안방, 거실, 공부방, 노인방 등 누가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곳에 깔 것인지, 사용자의 연령, 취향을 고려하고 각종 기능별, 가격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라.

2. 일시적 화려함, 유행에 민감하지 마라.

매장에 전시된 제품들은 각종 조명 등 주변 인테리어 때문에 자칫 자신의 집과 다른 느낌을 준다. 매장에서의 화려한 색상이나 고급스러운 느낌, 유행성,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3. A/S가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라.

일부 값싼 수입품이나 중저가 노메이커 제품 가운데 안전검증도 안된 제품이 많다. 미숙한 기술력으로 평형률이 엉망이거나 시공이 잘못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완전 시공 후 하자발생 우려가 있더라도 A/S가 확실히 보장되는 제품인지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